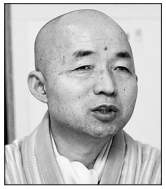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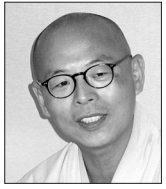
### 봉선사 차기 주지 일관 스님 선운사 종회의원 제안 스님 산중총회 · 보결선거 3일 잇달아 열려

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 차기 주지에 일관 스님(불암사 주지)이 선출됐다. 일관 스님은 봉선사 문중들의 합의를 거쳐 단독입후보해 일찌감치 선출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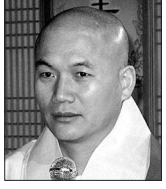
일관 스님

봉선사는 9월 3일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범인 스님

일관 스님은 일편 스님(불암사 회주)을 은사로 출가, 1979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재안 스님

대행사 중앙종회의원에는 단독 입후보한 범인 스님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9월 3일 열린 조계종 16대 중앙총회 보결선거 결과 선운사 종회의원에 제안 스님(개암사 주지)이 당선됐다. 선운사 종회의원 선거에는 제안 스님이 63표, 도완 스님 47표, 무효 2표로 제안 스님이 당선됐다. 신성민 기자

### 용주사 주지 신상 논란 문도간 충돌로 확대돼 전강문도회 총회, 용주사 경내 폐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신상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결국 문도 간 물리 충돌로 이어졌다.

전강문도회는 8월 31일 용주사 관음전에서 현 주지 성월 스님의 신상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용주사 측은 '개최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문도회장 정호 스님은 임시총회 보류 입장을 밝히고 개최 막은 용주사 측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비대위 측 스님과 신도들은 용주사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용주사 사중 스님들은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용주사 일주문의 나무 차단문은 부서졌으며, 용주사 사중 스님인 원각 스님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결국 비대위 측 스님과 신도, 용주사 사중 간의 대치는 점점 찾지 못하고 3시간 여 만에 풀렸다. 비대위 측 스님들은 향후에도 현 주지 범계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현 주지의 사퇴를 촉구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참사람 열린교육' 추진

## 8월 31일 전체교수회의서 '비전2020' 발표

참사람 열린교육을 위한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의 'VISION 2020'이 발표됐다.

동국대는 8월 31일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진행된 2015~2학기 전체교수회의에서 새로운 비전 'VISION 2020'을 선보였다.

동국대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구조 개혁 가속화, 무한경쟁에 따른 대학 본질의 왜곡, 재정 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 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취임식에서 약속한 대로, 학교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고 임기 4년 동안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실천하고자 'VISION 2020'을 수립했다"며 "동국가족들의 희망과 의지가 담긴 'VISION 2020'을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동국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VISION 2020'은 '시대정신과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중심대학'을 비전으로 △재정확충과 건실한 운영 △참사람 열린교육, 글로벌 연구자 양성 △대학 본연의 가치창출 △신바람 나는 캠퍼스 구축 △평원경영 효율화 등 5대 전략을 내세웠다. 5

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연구, 경영·재정, 시설·인프라, 의료원 등의 분야별 발전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5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국대는 평생교육 확대, 지식재산권 사업화, 학교기업 수익 확대 등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 나선다.

**인성·인권교육 강화 골자  
매년 300억 발전기금 확보  
의료원 3원 체제 효율 운영  
사이버대학 개설·전국교육  
"구성원 신바람 나게 할 것"**

또한, 매년 300억 원의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서울·경주·의료원 등 3원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참사람 열린교육과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제 간 융복합 교육의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이버대학

설립이다. 동국대는 그동안 불교관련 공부의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전국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연구자 양성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사연구원, Post Master 제도 등도 시행한다.

또 동국대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학문화 조성을 통해 대학 본연의 가치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선택·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신바람 나는 캠퍼스 구축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직장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연구년 신청 및 대학원생 지도자격 제한 등 네거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명예직원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동국대는 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의생명 융복합 활성화,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나눔 단위의 협약을 통한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동국대는 기업에서 탐낼 정도로 명품 인재를 기르는데 노력하겠다"며 "동국대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열기 'HOT'

조계종 교육원 주최 9월 15일 예선·10월 14일 본선

개인·단체 총 166명 참가  
영상·음악 활용한 자유 발표  
스님들 어학 능력 계발 기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개최하는 '제1회 학인외국어스피치대회'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참가 신청을 마무리한 결과 개인 45명, 단체 13개 팀 등 총 166명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외국어 스피치 대회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스님들의 국제 자질 향상과 세계문화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예선에서 학인스님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외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개인 참가자 중 영어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어 7명, 일본어 8명이 참가한다. 단체는 영어 12팀과 중국어 1팀이 참가한다. 여기에 러시아, 일본출신 외국인스님 3명도 특별 참가자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주제는 선(禪), 불교교리와 사상, 불교문

화, 사찰의 생활 등으로 PPT·관련사진·음악·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이들 중 개인 9명과 단체 5팀만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진출자는 외국어 내용 전달, 발음 등의 표현능력과 불교적 내용성, 창의성, 태도, 대중호응도 등을 고려해 당일 심사 후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각각 언어 능력이 출중한 스님과 재가자, 원어민 상당의 실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명예심사위원을 맡는다.

본선은 예선과 같은 장소에서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대상인 총무원장상 개인 1명과 단체부 1팀에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인 교육원장상 개인 2명과 단체부 1팀에 15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 개인 2명과 단체부 2팀에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예선 참가자 전원에게도 장려상이 수여된다.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발맞춰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시행해왔다"면서 "이번 대회를 학인스님들의 어학 학습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 한국종교문화축제 올해는 괴산서 만나요

9월 19일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종교존' 마련

첫 지역 개최 "지역종교 화합 도모"  
18~22일 사찰음식홍보행사도 마련

매년 서울서 개최된 대한민국종교문화 축제가 올해는 충북 괴산을 찾아가간다. 9월 18일 개막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함께 열려 지역 종교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9월 19일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제19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 슬로건은 '생명, 함께 심는 행복의 씨앗'으로 종교적 생명 사상과 유기농엑스포의 취지를 집약시킨 의미다.

종교문화축제 운영위원장을 맡은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9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교가 생명·환경 사상을 중시하다보니 괴산유기농엑스포 측에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지역 종교와 화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올해는 지역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교문화축제는 엑스포행사장 내 종교존에서 행복의 장, 화합의 장, 생명콘서트 등 펼쳐진다. 오전 9시 시작되는 '행복의 장'에선 스바람개비 만들기 △삼합과 부채 만들기 △토퍼어리 화분 만들기 △마법의 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화합의 장'에선 7대종교별 △종교 문화체험 △공예프로그래밍 등 실시된다. 종교문화체험서 불교는 사찰음식맛보기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괴산유기농엑스포 기간 중 '사찰음식 홍보행사'가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은 사찰음식 요리, 맛보기 등 체험하고 사찰음식 주먹밥(공취장아찌 쌀밥의 4종)과 전통차·웰빙효소 등 시식할 수 있다. 또한 사찰음식전문가는 사찰음식 웹툰, 모션게임, 다크이인형 등도 관람할 수 있다. 괴산 개심사와 협력한 사찰음식 홍보행사는 9월 18일~22일 5일간 실시된다.

한편 대한민국종교축제는 1990년 음악제와 미술제로 처음 시작됐으며, 1997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종교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박익희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059호 16·17면 '만남 그리고 향기' 기사 중 '가쁜'을 '가쁜'로 바로잡습니다.

# 서울 강남에 세계 최대 약사여래불 나투다

능인선원, 9월 13일  
'서울대불' 점안 법회  
개원 30주년 맞아 조성돼  
18m 규모... 2년 만에 완성

국내 대표 표교도량 능인선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세계최대의 약사여래대불 '서울대불'을 점안한다.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은 9월 13일 10시 30분 30주년 개원기념법회에서 세계최대의 약사여래대불을 모시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 약사여래대불은 신도협회를 통해 '서울대불'로 명명됐다.

서울대불은 18미터의 8층 건물 높이 규모로 지난 2013년 3월 29일 능인선원 내 대불광장에서 불사의 첫 삽을 떴다.

법회에서는 능인선원 연혁소개와 함께 3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은 스님과 원로위원 월주 스님



총 18m규모의 최대 약사불인 '서울대불'은 오는 9월 13일 점안법회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의 격려사, 자비어삼 108포대 기증식, 특별공로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점안법회 이후에는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방승인 김학도 씨의 사회하에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선원장 지광 스님은 점안법회에 앞서 "우리는 현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

가고 있으나 번뇌가 많아져 그 수명을 자초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넘실대고 있다"며 "서울 강남구의 주민들은 결보기에 좋아보일지 모르나 30년간 바라 본 결과 어느 곳보다 몸과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목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광 스님은 "많은 고뇌 끝에 '서울약사대불'을 구룡산 밑에 모시기로 16년 전 결의했다. 서울은 한국의 중심임에도 이렇다 할 약사여래기도 도량을 찾을 수 없었다"며 "약사여래의 가피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중국에는 세계최대의 입불인 노산대불, 화산대불 등 엄청난 규모의 대불들이 곳곳에 모셔져 있으며 일본에도 가마쿠라니, 도다이지 대불 등이 있다. 한국에는 이러한 대불이 몇 없는 이유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신도들의 헌신으로 꾸준히 준비해왔다. 동참해준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환 기자

# (사)한국불교미륵종 종도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본 종단에서 제적되었던 영빈스님(정병복)이 대표로 청구하였던 본 종단 총무원장권한대행 임명무효확인청구소송이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2015년 7월30일자로 기각(원고 패)되어 그동안 일부 스님들의 억지주장들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재차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미륵종단의 올바른 수행정풍 확립과 새 역사 창조에 종도스님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9월 1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

### 판결문 요약

사 건 2015가합30886 총무원장권한대행자임명무효확인 원 고 정병복(영빈스님)  
피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외 1  
주 문  
(1) 원고의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본안 판단

가. 종현상 총무원장 유고에 해당하지 여부  
전인 총무원장이 사임한 후 후임자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총무원장이 업무를 수행해 임이 부재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 까지 종전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영빈스님)는 종현 규정의 총무원장 유고에 해당하므로 원고 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었으므로 권형순(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유고라 함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이 전임 총무원장이 종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임의 경우까지 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권형순(묘각스님)의 총무원장 권한대행자 선출의 위법여부  
고(영빈스님)는 권형순(묘각스님)의 권한대행자 선출에 있어 종현상 총무원장을 임명할 때 필요한 중앙총회의의 선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종현 제

34조에서 "본종의 발전을 위하여 전 종도의 지구대의원으로 중앙총회의를 둔다"고 규정하여 중앙총회의를 주의적 피고의 기구로 두고 있기는 하나, 종현에 총무원장 임명이 있어 종회의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종현 제38조에서 중앙총회의의 권한으로 "중앙부서장의 선출 인준 및 불신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종현 제31조 제1,2항, 제50조 제1항, 제55조에서 원로위원장, 감사원 정무원장, 중앙교육부 정부장 선출 시에는 중앙총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총무원장 선출 시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종현 제38조 제3항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주의적 피고가 중앙총회의의 동의 없이 권형순(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것이 종현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권형순(묘각스님)이 법인이사회에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출된 것은 종현 제44조, 45조에 규정된 총무원장의 임명절차 및 전임 총무원장의 결의로 인하여 선출된 총무원장의 임기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법보신의 한계  
실령 총무원장 선임에 종회의의 선출 동의를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총무원장 선임 문제를 심의한 확대본부

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임에 법인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무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종현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중앙총회의가 의결의 사임으로 사실상 해산되어 중앙총회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③ 원고(영빈스님)도 중앙총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권형순(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데에 중앙총회의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을 두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임명을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의적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법인 사단인 한국불교미륵종이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주의적 피고인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으로 변경되었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은 종전의 비법인사단과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과 분리된 별도의 예비적 피고의 실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원 (☎ 055-338-3678, 010-4940-8979)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 고

(사)한국불교미륵종 중앙총회의  
의원 및 중앙간부 임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무원장 묘각스님	중앙총회의 의 장 보성스님	부회장 성진스님
총무원장혜순스님	부회장혜순스님	부회장혜순스님
교육부장도일스님	의원법일스님	의원혜연스님
종무실장진일스님	의원민애스님	의원진일스님

2015년 9월 1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